



우리네



● 유로리튬꽃

참가인행들 등록 6호

www.uriseed.com

Vol. 28

등록번호: 2007년 8월 7일 발행일: 2007. 8. 1 간행: 최원길 발행처: 박공정 편집인: 박공정 발행소: 경기도 이천시 도기면 송곡리 696 발행처: 우리꽃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96-82 TEL: 02(342)-021~2 FAX: 02(342)-0283



테마가든스케치 - 연재 12

조경의 완성미를 위한 제언 (II)

조경에 있어서 식물 특히 조경용지피식물의 식재가 마지막 공경이다. 때문에 식재가 완료되면 모든 작업이 끝난 것으로 이해하고 그 찬란한 마지막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의 일반적인 조경을 끝이나도 대개 완성에는 아니라고 말한다. 식재가 완료되면 완성이란 말을 사용해야 하는데 식물이 자라는 기간 즉, 시간이 흘러 포기가 커지고 꽃이 피고 땅이 피복되는 시점이 되어야 완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때문에 식물의 식재 분수를 일반적으로 3,4차 포트를 이용해 1㎡당 16본이 정량한 분수라면 완성형이라 하여 30~50본을 식재하고 완성형이라 한다.

그러나 식물의 분수와 더 많이 심으면 완성이 될까? 우리는 많은 고민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전 4년제 하면서 생육이 좋으니 한 줄으니 따지기는 고사하고 이제 3차 4차나하는 규정도 식물의 크기나 생육과는 무관하게 용기에 따라 그 규격을 따지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는 2년 전에도 식물규격에 대한 제안을 한바 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아니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기는 한 데서부터는 물어보는 것은 현재의 제도적 규정이 너무 강하고 굳이 있어 누구하나도 시도해 볼 염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 한다.

자, 생각을 해보자.

일반적으로 1㎡당 포기가 큰 약재의 경우 1본이면 훌륭하다. 최소한 4본이면 완성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난다. 꽃창포만 예를 들면 20~30주를 한포기로 하는 경우 3차 혹은 6본이면 훌륭하게 완성된다.

육종도 10주 정도가 한포기라면 4본이면 매우 훌륭하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이세가 되었건, 꽃창포가 되었건 육종이 되었건 간에 위에서 말한 포기만큼 큰 자연스런게 자랄 수 있는 큰 용기에 담아서 자란 상태로 유통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생산 농가의 경우 현재와는 다른 매우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3차포트의 경우 1㎡당 생산포트 수는 약 200~250포트가 되어 남용가격으로 따지면 약세가 300원으로 가정할 때 67,500원이 되지만 식재시 1㎡를 4포기로 캐버할 정도로 키우려면 최소 2년은 걸리고 그 1포기를 17,000원을 받기는 곤란하다. 때문에 농가들은 이를 회피하고 생산규격을 되도록 작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운반 시에도 많은 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된다.

그러나 조경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발주자 측에서 보면 조경공사가 완료되면 그 효과를 바로 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 특히 전원주택이나 도로의 쌍차로 원하리 작은 민박의 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하면 어떤가 생각한다.

공사가 장기기에 이루어지는 큰 현장의 경우 기존의 방법대로 따르고 공사기간이 짧아 관반로 준공에 이르는 가정장이나 육상조경, 전압주택정인 육은 입주

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현장 등에서는 이런 완성된 품목을 식재한다 어떻게 한다.

결론은 공사가 마무리 되면 경관도 완성이 되는 현장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살게진다. 발주자의 의도가 완성이 된 후 정착한지도 확인 가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공사금액도 많은 경우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유는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아직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완성에 식재 했을 경우 그동안의 잡초관리는 물론 기타 공정에 의해 파괴되거나 고사되는 경우 다시 재식재해야 한다. 또, 완성이 된 후 식재체가 작다거나 식물을 더 심어야 한다거나 하는 비용과 시간

을 따진다면 전체적인 기회의 비용은 거의 비슷하거나 큰 포기를 식재 했을 때 오히려 더 절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숙근사무비마 4포기를 심은후의 개화상태

이때 포기가 크다 해서 노지에서 바로 채취하여 현장반입이 되는 경우는 불가 하며 반드시 용기에 심겨진 상태로 뿌리가 제대로 활착되어 식재 후에 시

든다거나 식물 몸이 망가지지는 안 된다. 물론 이를 볼 아직 싸이 나오기 전 큰 포기를 용기에 옮겨진 경우는 예외라 할 수 있고 이때도 뿌리와 높이 충분히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야할 과제라 생각하고 '우리꽃'에서는 2008년 봄부터는 본격적인 대형식물포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이번 기회로 빌라 많은 공공

대와 접하여 나날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며 내년 봄 '우리꽃 불꽃축제'는 이런 대형 규격의 상품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 4포기 정도만 완벽한 형태의 무늬식재

Contents

- 조경의 완성미를 위한 제언(II) 1면
- 특집 : 2007 우리꽃 불꽃 축제를 마치고 2,3면
- 원형리포트/무늬식물시리즈 4면
- 대표적 조경식물과/목식, 한약가든을 식별 5면
- 수종, 수변식물의 이해/그라스소스케이프 7면
- 스텝/토코로젝트/토종야생화를 찾아서 7면
- 한일포토 8면
- 한일포토 9,10,11면
- 음식식물의 이해와 적용 12면
- 지상조경 14면
- 포진류식물원 15면

특집 - 2007 우리꽃 봄꽃 축제

2007 우리꽃 봄꽃 축제를 마치고

2007년 6월 8일, 파스산 봄 햇살 아래 우리꽃 봄꽃 축제가 개최되었다. 우리꽃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준비한 봄꽃회 행사이다.

오전부터 참가자들이 하나 둘씩 이전 연구소로 입장하더니 오후 2시 행사시간이 가까워지자 많은 인파가 모였고 방문객들로 객석은 꽉 채워졌다. 행사 전부터 방문객들은 봄꽃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행사장은 열기로 가득찼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우리꽃의 신품종을 소개하며 조경인들간의 인프라를 형성 하고자 함에 있었다. 우리꽃 신품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전시장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식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한 각 분야에 종사하는 조경인들이 깊은 교류를 맺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오후 2시, 각 업체에서 약 200여명의 조경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고 행사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함께 봄꽃축제가 시작되었다.

먼저 박공영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고 뒤이어 서준혁 부장의 우리꽃 회사소개가 있었다. 행사의 취지를 알리고 우리꽃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일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교수님들의 강의시간이었다. 첫번째는, '꽃마음 조성관과 농촌 관광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류선무 교수의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세계의 조경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광의 가치가 있는 꽃마음 조성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1시간 정도 강의가 이어졌다.

직접 전시포장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식물에 대
한 이해를 돕고 조경인들
이 깊은 교류를 맺고 화합
할 수 있는 기회를 ...

두번째로 김광두 교수의 강의는 '우리꽃과 우리나라 꽃'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꽃'과 '우리나라꽃'의 의미에 대해 제마있는 강의가 진행되었고,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조경 공사된 많은 사진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아릅답게 꾸며진 모습에 참가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우리꽃 신품종 설명회 시간이 이어졌는데 박공영 대표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는 일년생 조경용 속근지피식물'에 대해서 우리꽃 신품종들의 사진자료와 함께 품종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했다. 1시간정도의 설명회가 끝나 후 오후 4시쯤, 참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전시장을 직접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공영 대표의 안내와 설명 아래 참가자들은 전시포장을 자세히 견학을 했다. 행사 처음부터 먼저 전시장을 구경하고 싶



다고 부탁하던 방문객들이 많았던 터라 행사 중 가장 기대심과 관심이 높았던 시간이었다. 방문객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품종들을 직접 관찰하고 궁금했던 사항을 우리꽃 직원에게 문의하면서 견학시간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전시포장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직원들에게,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시포장 견학이 끝나면서 사무실 뒤쪽에 마련된 곳에서 다과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다과회장 일구에 품종 사진을 전시한 이력들을 설치해 또 다른 구경거리로 준비해서 식사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사진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많은 조경인들은 다과 시간을 통해 우리꽃에 대한 후기 경험담을 늘어놓았고 어울림의 장을 이어갔다. 오후 6시쯤 모든 방문객들에게 우리꽃에서 준비한 기념 선물을 나눠드리는 것으로 봄꽃축제는 마무리되었다.

6월8일, 봄꽃 행사를 통해 조경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자는 취지이래 이전 연구소의 이미지를 향상 시킬 수 있었던 성공적인 '우리꽃 봄꽃 축제'는 모든 조경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화려한 막을 내렸다.

바쁘신중에도 행사에 참여해주신 조경인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에는 또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특집 - 2007 우리꽃 봄꽃 축제
사진으로 돌아보는 봄꽃 축제

- 1 양귀비꽃의 매력에 흠뻑 빠진 참가자들
- 2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축하 화환을 보내
- 3 유신 건물에 감사드립니다.
- 4 초대강사로 강의중인 유선무 교수
- 5 초대강사로 강의중인 김광두 교수
- 6 유근지피식물을 소개하는 박공영 대표
- 7 아생화를 바라보며 절거른 대화들...
- 8 아름다운 꽃들을 사진에 담고 있는 모습
- 9 전시포장에서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
- 10 수백에 달하는 신품종 디테일이 대채려한 설명을 들으며...
- 11 열광적인 관람객들...
- 12 직원들과 조경인들의 화합의 장
- 13 아스피네의 매력에 사진에 담고 있는 모습
- 14 행사를 마무리하고 더과회를 즐기는 참석자들



현장 리포트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숨쉬는 “한경대학교 안성맞춤 경관농장”



무지개2,3원에 20여종의 장지개화종이 식재되어져 있다.

하였는데 테마별로 구역
을 나누어 다양한 볼거
리를 제공하고 있다. 먼
저 제일 먼 화단은 사계
화단을 만들어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꽃을 피
우는 식물들을 모아놓았
고 거기에서 무늬종원을



무지개3원에 금계국 왜성사계와 노란물결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국립 한경대학교는 30,000평
부지의 부속농장을 농생명과학대 심심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곳을 안성시민의 휴식공간 및 전시 및 행사장,
체험학습공간으로의 리모델링을 위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설계를 통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갔다.

전체 300여종의 숙근지피식물을 약 40만주 정도 식재



무지개1원에 꽃양귀비와 안개초가 만개되어 있는 모습

추기하여 무늬종식물을 식재하였다. 이 사계화단에서 약
200여종의 각기 다른 식물들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위쪽으로는 무지개원을 크게 3단으로 조성하였는데 맨
아래쪽 무지개1원에는 꽃양귀비, 안개초, 아이슬란드보비,
수레국화, 금연화, 끈끈이대나물 등 일년초를 작년 가을에
파종하여 봄(5월)에 화려한 경관을 연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꽃이 지고난뒤 칼잡이 정리한뒤 6월말경에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위쪽의 무지개2원,3원에는
장지개화하는 숙근지피식물인 가우라, 숙근사투비어,
스텔라리나, 금계국 왜성사계, 숙근왜성정인국, 톱풀 비
단 등 약20종을 선택하여 한줄에 한품종씩 식재하였다.
금계국 왜성사계의 노란물결을 시작으로 6월부터 가을까
지 계속하여 꽃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도 거대한 한 폭의 화려한 무지개를 보는듯한 느낌을
가져다주며 장관을 이룬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허브원, 아
스타린, 후식스원 등 테마원을 조성하였다. 허브원에는 배
초향, 민트류 등 약 10여종의 귀비와 허브가 식재되어져
있다. 아스타린은 국내 최대의 약 10여종의 품종이 식재
되어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후식스원에는 각기 다른 23
품종의 후식스가 그 아름답고 화려한 화색을 선보이고 있
다. 큰 연못 주변에도 수변수종식물로 단장을 했고 올 9

무늬종 시리즈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연재 - 19



꽃범의꼬리는 화단이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조
경식재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초경을 숙근지
피식물 중에 하나이다. 또한 절화용으로도 일부 사용될
정도로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기도 하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 꽃범의꼬리는 귀화식물이지만 우리나라의 아열

생육이 강한 무늬종 “무늬꽃범의꼬리”



대의 많은 수의 꽃이 나온다. 그러나 그 꽃이 한계면에
피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피어 올라가서
맨 위에 꽃이 피게 되면 끝이 나게 된다. 또한 분홍색,
보라색, 흰색등 화색이 다양하고 모양이 특이한데 마치
뿔고기가 입을 벌린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 부족함이 없다. 단, 화기가 좀 짧은데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꽃범의꼬리가 많은 장점이 있지
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 ‘우리꽃’에서는 꽃이 없어도 있
이 좋은 무늬꽃범의꼬리(Physostegia virginiana
‘Variegata’)가 이런 단점을 메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라고 생각하고 증식에 힘을 쓰고 있다.

무늬꽃범의꼬리는 배수가 잘되는 사
질양토에서 잘 자라고 여름에 건조에
약하지만 생육이 매우 왕성해서 한번
심어놓으면 잡초가 자랄 사이도 없이
무성하게 자란다. 번식은 보통 봄, 가
을에 포기나누기 또는 삽목을 통해서
하고 근경으로 뻗어나가기때문에 대개
무리를 지어 자란다. 따라서 심재현장
에서는 혼합식재보다는 독립적으로 군
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것이다. 그중

에도 무늬꽃범의꼬리는 군식도 좋고 꽃범의꼬리 중간에
포인트로 식재를 하라는 것도 효과적이다. 무늬꽃범의꼬리
의 아름다운 무늬는 꽃이 없을때도 또다른 볼거리를 가
져다 준다. ☺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

14



Lychnis속

Lychnis속은 식육과로 다년생 및 이년생이 약15~20여종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종류로는 동자꽃이 있고
이 외에 조경용으로 잘 쓰이는 몇몇 품종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비옥한 토양 및 양지에서 잘 자라며 반음지에서
도 잘 적응하는 품종이 있다. 꽃잎은 5장으로 꽃은 대부분 별
모양을 이루며 화색도 빨강, 주황, 분홍, 흰색 등 다양하다.
번식은 대부분 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분주 혹은 삽목을 하
려면 불에 하는것이 좋다.



동자꽃

동자꽃(Lychnis cognata)은 우리에게 익숙
한 자생종이다. 7~8월경에 꽃을 피우는데 주로
깊은 산 숲속이나 초원에서 수줍은 듯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자꽃은 내공해설과 건조에 약해 조경용으
로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품목이기도 하다. 비슷
한 자생종으로 털동자꽃이 존재하기도 한다.



비단동자

비단동자(Lychnis viscaria)는 조경용으로
활용하기가 좋은 종으로 반산해설의 깊은 토제
트럼으로 유지하다가 5월중순경부터 꽃대가 올
려오자 6월까지 화려한 진분홍색꽃을 피
운다. 꽃대에 많은 꽃이 매달려 그 시기에
다른 어떤꽃보다도 화려함을 보여준다.
군식은 해도 좋으나 장지개화하는 품종은
이므로 타식물과 혼합식재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꽃에서 생육하는 무늬종
을 브라헤나에 적응테스트 중이다.



붉은임동자꽃

붉은임동자꽃(Lychnis arkwrightii
‘Vesuvius’)은 형태적으로 동자꽃과 매우 유사
하다. 하지만 동자꽃에 비해 꽃이 진한 주황색이
며 행광색을 발광하여 매우 강렬하고 화려하다.
잎의 색깔도 진한 적색을 나타낸다. 초장은 30~
40cm정도 자라나 개화기는 6~9월로 장지개화
한다. 생육도 강건해 습지나 양지에서 모두 잘
적응한다. 특히 활엽수의 가림지나 음지에서 잘
자라는 습지식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수레동자

수레동자(Lychnis chalcidonica
‘Maltese cross’)는 꽃의 형태가 수레모양과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여러송이
의 꽃이 모여 주황색을 이루며 주황색의 꽃이
6~8월에 핀다. 꽃무리가 크고 생육이 강건하
며 양지 뿐만 아니라 반음지에서 잘 적응한다.
키는 약 60~70cm자라며 화력이 좋아 혼합식
재시 뿔꽃식물로 활용하면 잘 어울릴 수 있다.

건조 및 습에도 강한 매트형 기린초

옥상, 암석 가든용 식물 [연재 - 14]

“금강애기기린초”



4년전에 첫 출시한 금강애기기린초
(Sedum middendorffianum
‘Gumkang’)는 여러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많이 사용되어져
고 있다. 형태적으로 일반 기린초류와
는 달리 군식하였을때 매트형을 이루며
색이 짙어 볼때마다 구원을 이루며
독특한 모양을 선보인다. 꽃은 6~7월에 노란색 별
모양의 꽃을 피우며 꽃이 지고난뒤에도 적색의 꼬투
리를 뿜고 있는 모습이 관상 가치가 높다.



일반적으로 세덤류가 복사열과 건조에는 강하지만
습에는 약하여 물빠짐이 매우 좋은 장소에 식재하
면 장마를 무사히 넘길수 있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다. 하지만 금강애기기린초는 습에도 매우 강하여 여
름 장마철에도 웬만하면 젖러짐이 없이 그 모양을

잘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 암석가
든용은 말할것도 없이 일반 화단에서도
잘 자라 앞쪽식물로 또는 라인식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생육이 강건하여 적용폭이 넓은 금강애
기린초는 다른 소재와도 잘 어울리며
옥상,암석가든의 필수적인 소재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연재 - 19

물옥잠(*Monochoria korsakowii*)은 1년초로 꽃이 9월에 피는 물속식물이고 이 물옥잠과의 식물로 우리나라에는 2속 3종이었고 전세계에는 9속 30종에 이른다. 이번호에 소개하고자하는 꼬리물옥잠(*Pontederia cordata*, *영광pickereel weed* : 국명 필자 의견)은 같은 물옥잠과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다년생 식물이다.

잎은 물옥잠보다 긴 형태이며 심장형이다. 물의 깊이는 20~40cm까지 자라고 키는 50에서 양말이 좋으면 100cm까지도 자란다.

꽃은 5월말부터 잎의 기부에서 나온 꽃대에 꼬리모양의 보라색 꽃을 피운다. 꽃은 10월까지 계속하여 피며 줄기는 비스듬히 누우면서 포기를 키우지만 매우 강하게 직립한다. 잎이 매우 아름답고 보라색의 꽃도 장기간 개화하는 식물로 일반적인 물옥잠이나 볼팔개비와 같이 작은 소형으로 낮은 습지를 겨우 피복을 하는 정도의 식물과는 전혀 다른 연출이 가능하다. 또한 1년생이 늦게 발생하여 피복의 속도가 늦고 너무 밀생하여 잡초와 같은 느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수준의 아름다움을 소재이다.

꼬리물옥잠은 1~2분얼의 포기를 쫓가며 심어도 급파 자리므로 수중에 심을 때는 m당 16본 정도만 놓고 더 빨리 심은 후 바로 피복의 느낌을 주기 위하여는 25~30본을 심는다.

일반 연못이면 특별한 비배관리가 필요 없으나 새로 조성된 인공 연못이나 습지의 경우 식물성 퇴비나 잘 썩은

수중, 수변 식물의 이해/그라스 스케이프

낮은 습지의 새로운 이름

“꼬리물옥잠”

소통을 식재 자리에 조금 넣어 주면 좋다.

그리고 물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 식재후 5~10cm로 하여 활착시키고 키가 자랄때 따라 물 수위를 분례대로 해두면 아주 잘 자란다.

여름의 시원한 습지에 새로움을 선사할 꼬리물옥잠은 연중 식재 가능하다. 내한성이 매우 강해 조금 늦게 심



꼬리물옥잠은 줄기가 고수서서 자리며 20~40cm 물속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수중, 수변식물이다.

하면 된다.

꼬리물옥잠은 원래는 양지를 좋아하지만 약간의 내습성이 있으므로 물가의 버드나무 혹은 기타 건물에 의해 만들어 지는 반습지에 서도 생육이 좋으므로 물의 안과 밖 모두에 적용해도 좋다. 만약 물의 깊이가 40cm 이상이면 물에 심어서 연못안에 베풀, 혹은 잎이 무엇을 받치고 식재된 화분을 올려 두면 큰 문제없이 잘 자란다.

이제 단순한 물속식물의 개념에 새로운 이름을 삽입하는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라며 좀더 다양한 연출을 시도해보길 기원한다.



어든 큰 피해없이 월동을 잘한다. 이때 물을 때어서 안된다.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보통물을 빼는 연못도 있는데 이런 곳에는 식재를 하면 안된다. 만약 물을 말릴 경우 식물을 다른 용기에 심어 물을 부은 상태로 얼려 월동을 시키면 되고 이듬해 봄 연못의 물을 받고 식재를

상록의 멋스러운 블루색의 연출

“파란김의털”

화분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Grass Scape 연재 - 14



꽃대를 실러 준 모습

화분과를 중심으로 한 그라스류에 있어 가장 특이할 만한 요소 중에 식물 몸과 더불어 색의 연출이 고급스러움을 준다.

사실 파란김의털(*Festuca glauca* 'BlueFink')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기록이 없어 학명을 기초로 하여 우연이름으로 약역을 하여 필자가 붙인 이름을 밝히며 이 멋스러운 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자.

우리나라의 김의털(*Festuca ovina*)은 건조한 풀밭에서 자라는 다년생으로 매우 착한 땅에서 다른 풀들이 잘 자라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식물로 잎이 삼지름 가늘고 녹색을 띄거나 회색색을 띄고 있는 5~20cm까지 자라며 이삭이 나오면 약 30~50cm까지 자란다.

파란김의털은 김의털에 비해 잎이 좀 더 거칠고 잎의 색이 파란색으로 회색의 분이 더 진한 파란색을 가진 식물이다.

잎의 길이는 5~20cm 정도자라며 꽃은 5월에서 7월초에 피기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겉보기에 거의 아무런 지지 없이 커다란 풀을 하여 즐긴다.

식물의 형태는 아주 깔끔한 마운트 형으로 파란녹색의 느낌은 매우 아늑해지면서도 아름답고 겨울에도 상록의 파란색을 유지한다.



잎이 청록색인 청김의털은 모양이 아주 고급스러워 파란김의털과 줄을 지어 심으면 효과적이다.



건조에 매우 강해 우리나라의 암석지 혹은 마시토의 건조가 심한 곳에 식재하면 돋보이게 되고 이런 장소는 대체로 화분과식물이 잘 자라므로 화분과 정원을 만드는 것도 좋을 듯하다. 따라서 이 식물은 관리상 주의를 한다면 토양의 습도나 공중 습도가 낮은 지역과 너무 음지에 식재하면 색이 퇴색되어 좋지 않다. 하지만 소나무 아래 햇빛이 드는 장승이만 아주 좋은 지표적 소재가 될 수 있다. 또 정자가 끝난 무렵이면 흙수가 이루어지므로 잎의 길이와 함께 잘라주는 것이 좋다.

물론 장마철에 빨리 잘라 주는 것이 좋으나 꽃이 필 때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그 시기를 고려한다. 간혹 장마에 물러지는 경우가 있으나 물 빠짐을 좋게 해준다. 식물 형태는 바스하지만 색이 연 블루색으로 좋고 더 조밀한 청김의털(*Festuca filiformis* : 필자의 의견)과 색을 대비하여 식재 하면 더욱 좋은 색의 연출이 가능하다.



다육 좋은 색의 연출이 가능하다.

스물가든 프로젝트/토종허브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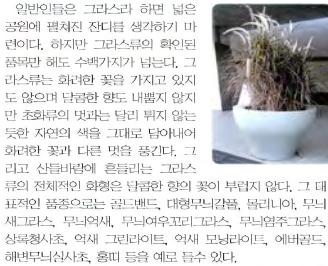
2007년 7/8월호

Small Garden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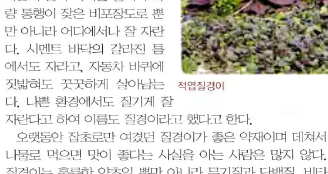
연재 - 14

튀지 않는 자연의 멋스러움

“그라스정원”



보라색의 작은꽃이 꼬리모양으로 계속 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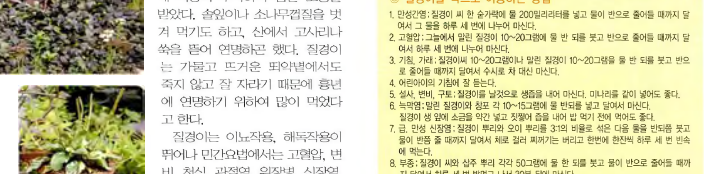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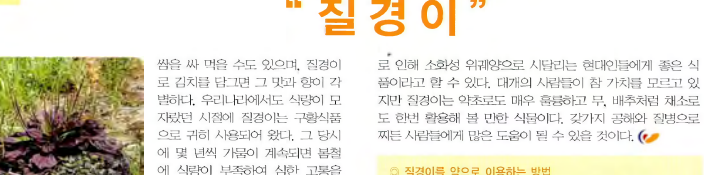


원반인들은 그라스라 하면 넓은 광원에 펼쳐진 전지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라스류의 확인된 품목만 해도 수백가지가 넘는다. 그라스라는 화려한 꽃을 가지고 있지만 초목류의 맛과는 달리 튀지 않는 듯한 자연의 색을 그대로 담아내어 화려한 꽃과 다른 맛을 풍긴다. 그리고 산정바람에 흔들리는 그라스류의 전체적인 화형은 탁월한 향의 꽃이 부럽지 않다. 그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그린드랜드, 대명무늬그라스, 물리나아, 무늬새그라스, 무늬새, 무늬새우꼬리그라스, 무늬새우꼬리그라스, 삼파정사초, 익새 그라스, 익새 모네타리트, 에바넬라, 해바라기삼사초, 옹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작년 '우라꽃'의 이름을 내걸고 2006 IFTX(동경국제



플라워 엑스포에 참가했을 때 그라스류만을 이용해 제작한 분경은 세계 각국에서 관람을 온 조경전문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렇듯 그라스류의 진정한 맛은 한국의 정서



뿐 아니라 세계의 정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화려한 꽃도 물론 멋있지만 그라스류의 특유의 맛은 곧 조경시각의 한 트렌드가 될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토종허브를 찾아서

연재 - 14

다목적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질경이”



질경이(*Plantago asiatica*)는 질경이의 마디나나 길가, 논두렁, 들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물이다. 6~8월에 하얀 꽃이 피어나고 10월에는 흑색의 종자 열매를 맺는다. 질경이는 사람이 걸어 다는 길이나 차량 통행이 잦은 비포장도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시멘트 바닥의 갈라진 틈에서도 자라고, 자동차 바퀴에 갇히어도 깨끗하게 살아남는 다. 나쁜 환경에서도 잘기게 잘 자라므로 하여 이름도 질경이라고 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잡초로만 여겼던 질경이가 좋은 약재이며 대처사 나물로 먹으면 맛이 좋다는 사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질경이는 훌륭한 약성의 뿌리 아래 루기질과 다네질, 비타민, 달콤 등이 들어있는 나물이기도 하다. 옛날부터 봄철에 나물로 즐겨 먹고 상하여 만리 두드레가 된 나물로도 먹었다. 소금물에 살짝 데쳐 나물로 무치고, 기름에 볶거나, 국을 끓여도 맛있게 편다. 튀김으로도 먹을 수 있고 잎을 날로



쌈을 싸 먹을 수도 있으며, 질경이로 김치를 담그면 그 맛과 향이 각별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식량이 모자랐던 시절에 질경이는 구황식물로서 귀히 사용되어 왔다. 그 당시 몇 년씩 가뭄이 계속되면 봄철에 식량이 부족하여 심한 고통을 보았다. 송이이나 소나무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산에서 고사리나 씩을 뜯어 연명하곤 했다. 질경이는 가뭄과 뜨거운 무더위에서도 죽지 않고 잘 자라기 때문에 흉년에 연명하기 위하여 많이 먹었다고 한다.

질경이는 이노작을, 해독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서는 고열, 변비, 천식, 관상병, 위장병, 신장병, 신장결석 등에 이용되어 왔다. 특히 질경이는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로 인해 소화성 위궤양으로 사망하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사람들이 참 가치를 모르고 있지만 질경이는 약초로도 매우 훌륭하고 구, 배추처럼 채소로도 한번 활용해 볼 만한 식물이다. 갖가지 공해와 질병으로 찢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질경이를 앞으로 이용하는 방법

1. 만성질환: 질경이 뿌리 송이를 물 200ml를 넣고 끓여 물이 반으로 줄도록 때까지 달여서 그 물을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마신다.
2. 고혈압: 그늘에서 말린 질경이 10~20그램을 물 한 컵을 넣고 반으로 줄도록 때까지 달여서 그 물을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마신다.
3. 기혈: 기혈: 질경이 10~20그램이나 말린 질경이 10~20그램을 물 한 컵을 넣고 반으로 줄도록 때까지 달여서 마시도록 마신다.
4. 아토피: 질경이 뿌리 송이를 물 200ml를 넣고 끓여 물이 반으로 줄도록 때까지 달여서 마시도록 마신다.
5. 위산: 위산: 위산: 질경이 뿌리 송이를 물 200ml를 넣고 끓여 물이 반으로 줄도록 때까지 달여서 마시도록 마신다.
6. 독약: 독약: 질경이 뿌리 송이를 물 200ml를 넣고 끓여 물이 반으로 줄도록 때까지 달여서 마시도록 마신다.
7. 위장: 위장: 질경이 뿌리 송이를 물 200ml를 넣고 끓여 물이 반으로 줄도록 때까지 달여서 마시도록 마신다.
8. 위장: 위장: 질경이 뿌리 송이를 물 200ml를 넣고 끓여 물이 반으로 줄도록 때까지 달여서 마시도록 마신다.
9. 위장: 위장: 질경이 뿌리 송이를 물 200ml를 넣고 끓여 물이 반으로 줄도록 때까지 달여서 마시도록 마신다.
10. 위장: 위장: 질경이 뿌리 송이를 물 200ml를 넣고 끓여 물이 반으로 줄도록 때까지 달여서 마시도록 마신다.
11. 위장: 위장: 질경이 뿌리 송이를 물 200ml를 넣고 끓여 물이 반으로 줄도록 때까지 달여서 마시도록 마신다.

현장 포커스

한국마사회 주로환경팀
우정훈 대리

고객만족도 제고의 첨병 “서울경마공원 야생화 정원”



화 정원의 디자인 및 배치에 있어서도 많은 자문을 받았다. 그로하여 4월 중순, 약 600평 규모에 총 66종 34,900여 본의 야생화가 식재된 서울경마공원 야생화 정원 조성은 완료되었다.



와에는 별 신경 쓸 것이 없다. 잡초만 조금 뽑아주고 병해충 약을 한달에 한번 정도 뿌려주면 된다. 그리고 정원 조성에 소재의 선택이 단연 중요하다. 단지 우리나라 토종야생화만으로 조성하기에는 화려함과 화기 등 모든 면에서 단점이 많이 있기에 다양한 조경을 숙근지피식물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우리꽃’에서 출시되는 고급품종들은 화색이 아름답거나 장기개화되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에 안정맞춤이고 소재도 다양하여 구미에 맞게 선택하여 조성할 수 있다.

야생화 정원은 일단 조성해놓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객 만족도는 올라간다. 또한 고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배움거리, 놀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창조하고 제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에서는 앞으로 야생화 정원을 확대하고,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와 고객가치 제고에 주력하고자 한다. 흐드러지게 핀 야생화 속에서 활짝 웃는 고객들의 미소가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 때문이다.



개장 첫째 고객만족도 97%를 달성하다.

식재 완료 후 개화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반응은 대단했다. 원두막과 어우러진 야생화 정원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많은 유치원생들이 경마공원 방문시 필수로 견학하는 코스가 되었으며, 연인들이 추억을 담아가는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야생화 정원은 '06년 실시한 야생화 정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7%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주로배공원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만족도가 높은 장소로 선정 되었다.

'07년 더욱 풍성해진 야생화 정원

'06년 야생화 정원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고객들의 의견이 쏟아졌는데, “수평적이다”, “사진을 찍을 배경이 부족하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비탈기배면, 암석원, 언덕원, 솟대·장승원, 부가튼 등의 수직적 아이덴티티와 특색 있는 코너들을 추가하고, 토퍼아트를 배치하여 풍성하고 아기자기하며 볼거리가 많은 정원으로 재탄생되었다.

높아지는 고객만족도와 고객가치

많은 사람들이 야생화 정원 조성을 두려워한다.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고 해충과 벌레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생화 정원은 처음 조성 때

야생화가 만발하는 정원을 꿈꾸다.

서울경마공원에 방문을 받아 왔을때, 현재의 야생화 정원 지역은 직원과 마필관계자들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말농장 관리에 소홀하여 잡초가 어는 커튼을 자라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린 결론은 이곳을 야생화가 만발하는 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한번도 해본지 않았던 일이라 두려움도 많았고, 전 과정을 직원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06년 야생화 정원이 조성되다.

서울경마공원 야생화 정원은 2006, 3월초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기존 주말농장이던 지역을 갈아엎고 관수시설을 하고 식재가 완료되기까지 약 한달 반이 소요되었다. 야생화 정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야생화 및 숙근지피식물을 ‘우리꽃’을 통해 공급받았고, 야생



우리꽃

현장 히트상품



향기가 좋은 장기개화형 숙근사루비아 시리즈

1.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숙근지피식물
2.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형 식물
3. 생육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5품종의 숙근사루비아
4. 꽃 뿐만아니라 잎의 향이 좋은 향기식물에



다양한 화색의 가을연출 아스타 시리즈

1. 가을을 대표하는 최고의 숙근지피식물
2. 생육이 빠르고 다화성의 꽃은 매우 아름답다.
3. 화색이 다양하여 서로 어울려 식재해도 좋다.



꽃분열의 아름다운 장기개화형 코리플 시리즈

1. 생육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5품종의 코리플
2. 품종별로 화색, 크기, 화기 등이 서로 달라 구미에 맞게 품종선택가능
3. 장기개화되어 화단, 도로변, 식물원 등에 사용하면 좋다.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분홍색 루드베기아
에키나
장기개화형의 이국적 아름다운



1. 생육이 강해 어떤 환경도 좋다.
2. 꽃이 오래 열매가 아름다운 고급식물

화색	분홍	꽃기	7~8월
원도	양지	초장	70~80cm

일무늬가 뛰어난
무늬금계국
생육이 강한 고급정원용



1. 키가 작은 무늬금계국
2. 잎의 황기가 좋아 모란트식물로 좋다.

화색	노랑	꽃기	6~9월
원도	양지	초장	40~50cm

정열적인 아름다운
왜성 모나다
새로운 개념 화단, 도로용 지피식물



1. 매우 정열적인 화려함을 선사
2. 잎의 황기가 뛰어나고 생육이 강건하다.

화색	빨강	꽃기	6~8월
원도	양지	초장	50~60cm

키가 작은 청색의 아름다운
속근왜성천궁국
꽃이 아름답고 키가 작은 여름대표식물



1. 꽃이 화려하고 개화기가 길다.
2. 화색이 아름답고 강압해 최상의 포인티트 군식물이다.

화색	빨강	꽃기	6~10월
원도	양지	초장	40~50cm

잎의 질감이 좋고 느낌이 좋은
에버그린아이비
음지의 새로운 대안



1. 잎이 아주 조밀하게 자라며 광택이 좋다.
2. 수월히 미관을 비롯하여 실내조경에도 유리

화색	음지	꽃기	모복
원도	음지	초장	모복

최고의 음벽, 치매용 소재
눈붉은질레
위에서 아래로 빨강의 식물폭포



1. 국내 양묘제를 개량한 최상의 청토수종
2. 자란이 빨라 음벽, 양사면, 울타리녹화 1년 이내 OK

화색	빨강	꽃기	5~6월
원도	양지	초장	모복성

잎의 질감이 매우 뛰어난
은썩
은화색의 뛰어난 지피력



1. 지피력이 매우 뛰어나다.
2. 잎의 질감이 뛰어나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화색	노랑	꽃기	5~6월
원도	양지	초장	5~10cm

잎이 이색적인 아주가
주름잎아주가
질감이 좋고 지피력이 좋은



1. 잎이 둥글고 광택이 있어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2. 잎의 형태가 이색적인 아주가라 다른 아주가 군식물에서 좋다.

화색	보라	꽃기	5~6월
원도	양지/음지	초장	10

봄부터 가을까지
스텔라관추리
키가 작은 최상의 연중 개화종



1. 꽃이 틈스관과 비슷하다.
2.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화색	노랑	꽃기	5~10월
원도	반음지/양지	초장	30~50cm

다양한 화색의 자유로운 물결
개량감국
장기개화형 감국



1. 장기개화형으로 봄부터 다양한 꽃을 감상
2. 사리에도 강해 늦가을까지 화려한 꽃을 연출

화색	혼합	꽃기	6, 9~10월
원도	양지	초장	70~80cm

선인 고운 식물의 화강모던트
에키나 스노우
순백의 이국적 아름다운



1. 색다른 느낌의 조경소재
2. 생육이 강해 어떤 환경에도 좋다.

화색	하양	꽃기	7~8월
원도	양지	초장	70~80cm

장기개화형의 산수재품종
달개비 블루
아름다운 블루색 달개비



1. 햇빛이 어느정도 들어오는 반음자에 적합가능
2.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화색	보라	꽃기	5~9월
원도	반음지	초장	50~70cm

꽃물결의 다화성 꽃무리
스타치스
잎과 꽃이 모두 좋은 소재



1. 키가 작고 직립의 꽃무리가 아름답다.
2. 포기상징이 빠르고 많은 꽃대를 형성한다.

화색	보라	꽃기	7~8월
원도	양지	초장	40~50cm

수변의 무늬줄식물
황금무늬줄쌀풀
생육이 강한 고급종



1. 양지 및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2. 연못조성시 수변식물로 활용하면 좋다.

화색	노랑	꽃기	6~7월
원도	양지/반음지	초장	60~70cm

수중식물의 산수재
사초 에버골드
식물품이 좋은 무늬줄



1. 잎은 부드러운데도 질감이 뛰어나다.
2. 생장이나 증식이 매우 빠르고 물의 정화능도 뛰어나다.

화색	노랑	꽃기	6~8월
원도	양지/반음지	초장	20~40cm

잎의 질감이 매우 뛰어난
해변국화
주역형의 가을꽃



1. 진화색의 잎은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2. 주역형의 노란색꽃은 늦가을까지 유지된다.

화색	노랑	꽃기	10~11월
원도	양지	초장	40~50cm

음지의 빠진 지피
무늬엔젤리카
화려한 무늬의 잎과 꽃



1. 습기가 많은 어둡고 희고의 식물
2. 생육이 강건하여 물양지 및 건습지를 가리지 않는다.

화색	하양	꽃기	5~6월
원도	양지/음지/수변	초장	50~60

화색이 다양한 품종
톱풀 파스텔
고급스러운 이미지 연출



1. 화기가 길고 생육이 강하다.
2. 화색이 다양하여 고급정원용, 공원, 골프장 등에 반영가능

화색	혼합	꽃기	6~10월
원도	양지/반음지	초장	60~70cm

수중식물의 산수재
무늬참포
향기가 좋고 무늬가 좋은



1. 무늬가 아름다워 연못조성시 포인트식물로 좋다.
2. 군식하거나 라인식물, 혼합식재시 암석물, 옥상조경, 물결식물 등에 이용하면 좋다.

화색	무늬줄	꽃기	6~8월
원도	양지/수중	초장	65~75cm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 개화
상록잔디패랭이
잔디패랭이보다 더크고 화려한 꽃방석



1. 여름에 잔디처럼 연속 개화하는 상록잔디 패랭이
2. 군식하거나 라인식물, 혼합식재시 암석물, 옥상조경, 물결식물 등에 이용하면 좋다.

화색	분홍	꽃기	4~10월
원도	양지	초장	10~15cm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잎이 아름다운 키작은 초목
삼색조팝
가을의 단풍은 일품



1. 황금색잎에 붉은빛을 띠는 새순과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2. 하교현상으로 기타어음식물과 혼식하는 것이 좋다.

화색	분홍	꽃기	6~7월
원도	양지	초장	40~50cm

잎과 꽃이 붉은빛을 띠는
붉은애기평의비름
지피력이 좋은 세덤류의 신소재



1. 건조한 곳의 생육도 매우 양호
2. 다양한 화색의 고급 정원용, 공원, 골프장용

화색	분홍	꽃기	7~8월
원도	양지	초장	10~15cm

키가 작은 식물의 기원초
상록애기리민초
건조 및 옥상녹화용



1. 잎의 광택이 좋고 겨울 상록
2. 식물이 좋고 군식 또는 포복성재배와 어울려 심으면 좋다.

화색	노랑	꽃기	6~7월
원도	양지	초장	15~20cm

대형 모던트 식물
무늬역새
새로운 지피 조경소재



1. 특색의 물결치는 조경가능
2. 무늬가 선명하고 아름다운 대형종

화색	갈색	꽃기	9~11월
원도	양지	초장	150~200cm

순백의 무늬가 돋보이는
무늬염주그라스
고급화단용 그라스 소재



1. 순백의 무늬가 좋아 라인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2. 하교현상으로 기타어음식물과 혼식하는 것이 좋다.

화색	무늬줄	꽃기	15~20cm
원도	양지	초장	15~20cm

포복성으로 지피력이 뛰어난
음지향국
잎과 꽃이 뛰어난 최고의 음-양지용 소재



1. 음지의 새로운 대안식물
2. 장기개화하는 노랑색의 꽃이 절경

화색	노랑	꽃기	5~6월
원도	양지	초장	10cm

아름다운 초원을 가진
억새 모닝라이트
고급 무늬역새



1. 안경초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
2. 가을꽃이 부족한 초경한형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소재

화색	갈색	꽃기	10~12월
원도	양지	초장	120~150cm

음지의 새로운 신소재
무늬광대나물
잎과 꽃이 모두 좋은



1. 무늬가 화려하고 지피력이 매우 뛰어나다.
2. 음양지 및 건습지를 가리지 않고 잘자란다.

화색	보라	꽃기	5~7월
원도	양지	초장	30~40cm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연재 - 14

“음지식물의 분류”

음지 식물

1일 일조시간
2시간미만에도 생육가능



반음지 식물

1일 일조시간
2시간에서 3시간사이 생육가능



반양지 식물

1일 일조시간
3시간에서 5시간사이 생육가능



그 동안 소개했던 음지식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음지식물을 일조량에 따른 적용관점에서 3그룹으로 나누어 주요품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골프장, 아파트, 도로가의 새로운 경관연출!

대면적의 아름다운 연출을 위한 최고의 소재

"우리법면 3.4호"



이천연구소



파인밸리 C.C



춘천 C.C



용인수지 도로법면



렉스필드 C.C

특 성

- ① 야생화 26종이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매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 ② 일년생과 다년생이 적절히 혼합되어 첫째에는 일년생위주로 꽃을 피우면서 첫째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 ③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경관과 아울러 안정된 식생을 유지한다.
- ④ 연중 시공이 가능하며 유사품과의 구별을 위해 무늬경이를 혼합하였다.

사용량

- 파종량(m²) : 10g
- 파종 시기 : 연중가능
- 파종 방법 : 면 정리후 기계분사파종
상황에 따라서 손파종도 가능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12-1281~2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자원모집 안내

우리꽃 - 이천연구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우리꽃 이천연구소	
모집부분	모집인원	학 렳	자격요건
생산관리	2명	고졸 이상	원예, 조경관련 전공자 우대
품종연구	1명	대졸이상	생물학과 원예학과 전공자 (경력자우대)

※ 인사담당 ※

- 담 당 : 이현진
- 연락처 : 02-3412-1281 (Fax, 02-3412-1283)
- E-mail : jinyilee0123@naver.com

전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연구소

1만 3천평의 생산·연구기지

지상중계



1. ≪ 모주밭의 한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우라, 분홍가우라, 분홍비단아 환짝 민개하여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다. 여름으로 들어서며 이천연구소는 곳곳에 자리잡은 식물들이 내뿜는 형형색색의 조화로움으로 가득차 있다.

2. ≪ 아жу머니들은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지에서 리아트리스 구근 및 노지 재배를 식물들을 비닐멀칭하여 심고 있다. 이천연구소에서 출고되어지는 품목들은 이런 여러 사람들의 발의 결실로 이루어진다.



3. ≪ 화려함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개량루룩스, 각 품종들이 루룩스 모주밭에서 포도송이 만한 다양한 화색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7월 말경 1차개화된 꽃이 전 무렵 꽃대를 커팅해준다면 다시 2차개화하며 가을까지 계속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4. ≪ 한여름에도 맑은 잡초와의 전쟁은 계속 된다. 증식중인 호스타품종, 원주리품종 모주밭에서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해주고 있다. 내년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호스타와 원주리 품종들이 선보이게 될 것이다.



5. ≪ 이천연구소 전시포장과 마주보고 있는 모주밭은 그라스, 조팝류, 루룩스 등 300여종의 식물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멀리서 볼 때 다양한 식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한쪽의 수채화를 연상시킨다.



6. ≪ 하우스 사이의 효과적인 환풍과 잡초방제를 위해 자카베를 깔고 수중식물을 심어 높은 모습과 폐자재(가베트)를 잡아 높은 모습, 잡초 방제와 깔끔한 이미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네 설문조사 안내문

우리꽃에서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우리넷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독자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번 호부터 우리넷 1년 연회비를 받게 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알차고 정보가 가득한 우리넷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넷을 아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설문조사에 성의껏 응해주시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유익한 우리넷을 만드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 첨부된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 아래 FAX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 당 : 이현진 사원
•연락처 : 02-3412-1281 (FAX, 02-3412-1283)

"이 코너는 경관식물원을 표방하는 포천뷰식물원의 월별 주요 경관과 식물원 내의 이벤트 및 진행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편집자주 -



앙귀비식물원

농업적 경관, 체험, 휴식이 있는 곳 9

포천 뷰식물원



사들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상으로 디지털 카메라, 회원권 등이 증정되며 수상작은 7월말 경 식물원 내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Red Poppy Festival

5월 독립 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6월로 접어들면서 뷰식물원은 또다시 붉은 물결이 일렁이는 화려한 축제 of 장으로 변했다. 6월1일부터 시작해서 25일까지 계속 진행될 앙귀비축제(Red Poppy Festival)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붉은색의 개양귀비를 비롯해 튜립로베, 아이슬랜드로베, 캘리포니아로베, 오리엔탈로베 등이 7,000여평 들만큼 화려하게 수놓았다. 특히 이번 앙귀비축제는 단순하게 꽃만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 서양화가 시회원 초대전, 이야기가 있는 앙귀비 마술쇼, 보디페인팅 행사 등이 함께 펼쳐졌다.

제2회 앙귀비 사진 공모전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앙귀비 사진공모전을 진행했다. 앙귀비축제 기간동안 식물원에서 앙귀비나 식물원 풍경을 찍은 사진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 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 접수된 사진은 심



습지원은 20여종류의 꽃창포가 활짝 만개하여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나무로 만든 징검다리를 연인과 또는 가족과 함께 건너며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어떨지...

앙귀비들만의 변신

붉은 물결이 일렁이던 앙귀비들만은 현재 앙귀비 종 자체종을 모두 마치고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품종들을 식재했다. 다양한 색깔의 후복스를 비롯해, 왜성모나나, 프리움, 속근사루비아, 펜스타몬 등 늦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다년생과 가을을 대표하는 코스모스(황화코스모스, 코스모스 빅스타사계), 보라색 꽃이 아름다운 비베나 등이 라인별로 심겨져 있다. 7월 말경부터는 확 달라진 앙귀비들만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형형색색의 나리정원

앙귀비가 지고 난 아쉬움을 형형색색의 백합과 습지원에 피어난 꽃창포가 채워주고 있다. 뷰식물원의 또다른 자랑거리인 나리정원은 현재 다양한 색상의 나리 종류가 활짝 만개해 있는 상태다. 국내와 다양한 백합 종류가 심겨져 있는데, 노란색, 분홍색, 오렌지색, 붉은색 등의 하늘나리가 시차를 두면서 피어나고 있다.

- 1) 꽃양귀비와 조화롭게 만개한 안개초
- 2) 앙귀비 마술쇼가 진행되고 있는 허브하우스 앞
- 3) 앙귀비를 모티브한 서회원 화가 초대전 「종족」
- 4) 다양한 색상의 나리가 만개해 있는 나리정원
- 5) 습지원에 만개된 꽃창포

포천 뷰식물원
The View Botanic Garden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441
문의 : 1688-5088
서울사무소 : 02) 3412-1281~2

고급조경을 위한 새로운 경관연출기법!

‘우리꽃’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성하는 최고의 암석원

ARI 가든 (Alpine Rock Island Garden)



동양파인벨리 C.C



베어크리크 C.C

특 성

- ①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론 동절기에도 상록성의 식물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하여 최고의 경관적 암석원을 연출한다.
- ② 기존의 자연여건을 살리면서 돌과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이용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새로운 타입의 경관연출기법
- ③ 우리나라의 기후조건 등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식재패턴연에서 도 새롭게 이루어지는 암석원
- ④ 식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후 식물의 자연스런 천이과정까지 녹여 내는 전문가용 정원



아시아나 C.C



이천연구소



충부 C.C



춘천 C.C



일산 킨텍스 정문



우리꽃 · Wellbeing Life 시공문의 : 02)3412-1281~2

社告



"제4회 우리조경인상 대상(大賞)"

☆☆☆ 축하합니다 ☆☆☆

제4회 우리조경인상에 6개업체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상(大賞) - 4박 5일간의 중국연수

골드레이크 C.C / 김해시기술센터 / 마우나오션 C.C
수프로 / 파주시청 / 한국마사회 (가나다순)